

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양서류·파충류

기쿠치 계곡은 강과 습한 숲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롱뇽과 개구리 등의 양서류에게 이상적인 환경이다. 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양서류·파충류의 일부를 소개한다.

지쿠시부치 도롱뇽은 계곡 삼림의 지표면이나 맑게 흐르는 물에 서식한다. 낮에는 바위 그늘에 숨어 있고 밤에만 나와서 먹이인 쥐며느리 등의 곤충을 찾기 때문에 성체를 목격한 예는 드물다. 여름이 되면 작은 시냇물이나 연못에서 헤엄치며 수생 곤충을 잡는 유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쿠치 계곡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개구리는 흑갈색의 **다고 개구리**다. 몸길이 5 센티미터 정도로서 강변의 작은 연못에서 자주 눈에 띈다. 또한 **서일본두꺼비**도 자주 보이는데, 몸길이 18 센티미터까지 자라는 일본에서 가장 큰 개구리다. 산책로 주변의 웅덩이에서 검은 올챙이가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생개구리**는 4 월부터 7 월의 번식기에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피리 같은 울음소리가 특징적이다.

일본얼룩배영원은 도마뱀을 닮은 작은 영원(도롱뇽의 일종)으로서 강변의 웅덩이에서 느긋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배에 빨간색과 검은색의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서 개체에 따라 무늬가 미묘하게 다른데, 25 년 정도의 수명 동안 거의 무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